

나주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준비상황 보고회

부시장 주재 시설물 87곳 안전점검...6월 16일까지 완료

“점검대상 건축물 및 주변 위험요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

나주시는 최근 강영구 부시장 주재로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집중점검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목표로 오는 6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도로·교량, 관광·숙박 시설, 건

설현장, 산사태 위험지역, 의료기관 등 총 87곳 시설물이다.

시는 고층건축물과 같은 인력·장비 접근이 어려운 시설은 경우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는 등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점검에 따른 경미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하는 한편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

까지 주기적인 이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된 보고회에는 안전재난과, 건설과, 건축허가과를 비롯한 14개 부서,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안전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강영구 부시장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대상 건축물 및 주변 위험요인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인형극 진행

화순군과 화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화순군 내 어린이 대상 위생·영양 교육 내용으로 5월 3일 화순 하니움스포츠센터 다목적실에서 영양마을 튼튼 인형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귀공주와 설탕왕자’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인형극은 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 7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공연했다. 공연은 ▲컬러푸드에 대해 알고 골고루 먹기 ▲순 씻기 등의 주제를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食)행동 형성을 유도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어린이에게 교육 흥미가 높은 인형극으로 진행되어, 어린이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동요 부르기 활동과 레이저쇼로 집중도를 높이고, 외부 포토존을 마련하여 기념 촬영 행사도 진행했다. 또한 인형극 관람 후에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위생·영양 교육 스케치북 ▲양치 세트 제공으로 센터 홍보 하였으며, 또한 가정 연계 교육을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시켰다.

화순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나한희센터장)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인형극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가 올바른 식(食)행동에 대해 즐겁게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실시

신규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대상,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

곡성군이 지난 2일 신규농업인과 귀농·귀촌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작업에 사용되는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기초적인 작동원리와 조작 방법, 안전사고 예방의 이론교육과 자가 정비·점검, 농작업 실습으로 진행됐다. 영농이 본격화되면서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

법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실시됐다.

오는 9일에는 예취기와 엔진톱 이론과 실습교육이 진행된다. 농업인들 스스로 기본적인 점검과 정비를 수행하며 간단한 고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 보관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처하는 실전 교육도 실시된다.

또한 농가들은 예취기와 엔진톱을 2~3대

씩 보유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작업 방법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기술교육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임대농업기계 사용을 위해 방문할 경우 1:1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길 걷고 즐기며 건강하길”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걷기대회 개최

메타세쿼이아길 편도 3km 구간 함께 걸으며 담양 싱그러움 만끽



담양군이 지난 4일 '담양길! 걷고 즐기고 건강하길!'의 주제로 군민 및 관광객이 참가한 가

운데 메타세쿼이아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4년 만에 열린 '2023 New Bamboo Festival'을 찾아온 관광객과 군민이 어울려 걸으며 5월 담양의 싱그러움을 만끽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길 바라는 취지로 마련했다.

축제 주무대를 출발점으로 메타세쿼이아길 편도 3km 구간을 함께 걸었으며, 곳은 날씨에도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참가해 걷기 좋은 담양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겼다.

대회 완주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했으며, 곳곳에 마련돼있는 다채롭고 흥미로운 축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보 담양군수는 “걷기대회에 참여해주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축제에도 참여해 여러 즐길거리와 먹거리 등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탄소 중립 실천 앞장

구례군이 올해 10월까지 공용주차장 3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61기를 추가 설치한다.

군은 지난 3월 23일 공모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대상 업체로 한국전지금융(주)을 선정했고, 설치 대상지 현지 실사를 마친 후 4월 28일 한국전지금융(주)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급을 위한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군은 부지제공과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한국전지금융(주)은 올해 10월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61기를 무상으로 설치 후, 향후 10년간 운영하며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증가 중”이라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기차 충전소에 CCTV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하여 사고 예방 및 사후 점검 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례=박진호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널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